

임실표 과수가공식품 수출길 활짝 농업기계 정비 걱정 덜어준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수출컨소시엄 사업 공모 선정... 동남아 수출 판로 확보

임실군의 대표 연구소인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개발한 제품들이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오른다.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관한 2025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공모에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대표 심민)가 선정됐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와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또는 수출상담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해외 파견 전·후 단계의 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으로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 Impact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릴 2025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THAIFEX-Amua Asia)에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동부관식품클러스터사업 고부가식품개발 및 표준화'와 '특화품목 6차산업화 임실 복숭아·매실 농촌융복합사업'을 통해 생산 중인 제품 10종(매실매실 외 9종)과 관내 대표 과수가공업체인 따담(영) 제품 11종(복숭아즙 외 10종)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임실군의 대표 연구소인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개발한 제품들이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오른다.

선보일 제품 중 대표 제품인 아임실 시리즈는 임실 대표 농산물인 딸기와 복숭아, 매실 등을 활용한 스틱형 액상청으로 2024년 HACCP 인증 취득과 함께 몽골과 독일로 활발하게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수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 공모사업 선정으로 임실 과수를 활용한 제품의 국외시장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임실군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식품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에서 생산된 과수를 기반으로 개발한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사업에 선정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새로운 농식품 수출 판로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더욱 향상시키고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순창 만든다

순창군,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체결

순창군은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7개 기업과 여성 인력 채용 확대와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에서 주관한 이번 협약은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



숙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사조산업, 한국씨엔티, 희망병원, 성가정식품, 순창시니어클럽 등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 체결과 함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에서도 여성친화일촌기업들과 지속 협력하겠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경력 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많은 여성과 기업이 참여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중소기업인회, 남원시에 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18일 남원시 중소기업인회(회장 김동훈)가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계비 및 복지 지원금으로 사용될 500만원을 남원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중소기업인회는 매년 꾸준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기업인들을 위한 제도 안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며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동훈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중소기업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갔



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오지마을을 100곳 대상 순회수리 교육 실시

순창군이 농업기계 수리센터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자가 정비 기술 향상,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마련됐다.

순회수리 교육은 이달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관내 오지마을 100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농업기계 전문경력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수리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농업기계 점검과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단순한 수리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업기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농업기계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계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소모성 부품과 기타 재료비 6만 원 이하의 부품을 무료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이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회수리 교육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작업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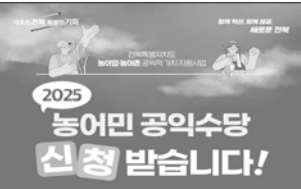
남원시, 5월 16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남원시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를 통해 경작지 유지 및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농촌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방식이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도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에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의 경우 구성원 1인당 30만원이다.

남원시는 대상자 검증 절차를 거쳐 추식 명절 전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서 제설차량 주행 중 '평'... 덤프트럭 화재 발생

18일 오전 5시 17분경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에서 제설작업 중이던 15톤 덤프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순창소방서는 즉시 출동해 약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오전 6시 9분경 완전히 진압됐다. 이번 화재로 차량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당시 차량 운전자 이 씨(남, 79년생)는 팔덕면에서 인계 방면으로 이

동하며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운행 도중 차량 뒤쪽에서 '평'하는 폭발음이 들려 정차 후 확인한 결과,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운전자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을 잡지 못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가 현장 도착 후 확인한 결과, 차량 운전석 뒤편 2축 안쪽 타이어에서 발화해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지역 소식통

임실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임실군이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수질 종합정보를 담은 2025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6,000부를 발간하여 12개 읍·면에 배부 완료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5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정수 처리 과정 △수돗물에 대한 일반상식 △2024년도 수질검사 결과 △주민 협조 사항 △상수도 민원 안내 등 우리 군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담아 군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알리고자 제작했다.

관내에 위치한 임실 및 강진정수장의 상수원수는 각각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인 '약간 좋음(Ⅱ등급)'과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좋음(Ⅰ등급)'으로 나타났다.

정수 처리 공정을 거친 정수 및 관내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수용가에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실=전홍영 기자

순창군, 28일까지 장내 기생충 무료 검사 실시

순창군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증(간디스토마) 등 11종의 장내 기생충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희망하는 30세 이상 주민은 이달 28일까지 순창군보건의원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용기(대변통)를 수령한 후, 채취한 분변을 제출하면 된다. 검사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에게는 치료비도 무료로 지원된다.

특히, 순창군은 섬진강 유역에 위치한 장내 기생충 질환 유행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간흡충 중심의 기생충 검사가 더욱 필요하다.

장내기생충 무료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검사를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보건의원(650-5215, 5243) 또는 거주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